

石洲 權輶의 漢詩 考察

成 範 重

I. 머리말

II. 方外人的 삶의 方向과 詩人意識

A. 方外人的 삶의 方向設定

B. 詩人意識의 側面

III. 石洲의 漢詩世界

A. 現實葛藤과 自我實現의 側面

B. 社會現實에 對한 視角

IV. 맺음말

I. 머리말

石洲 權輶(1569~1612)은 조선중기 선조·광해군 연간에 활동했던 시인이다. 그는 뛰어난 詩才와 날카로운 현실감각 및 時俗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당대 사대부들 사이에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문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착화된 중세기적 봉건질서 아래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는 문과에 급제한 후 관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대부 가문 출신들의 보편적 삶의 과정이라 할 때, 그러한 삶의 과정을 과감히 거부하고 포의로서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석주의 행적을 보면, 그는 봉건적 지배질서 속에 편입된 일상적 삶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단 그는 중세사회의 문제적 개인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야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기존의 통치질서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당대 정치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비판하며 자기의 본성을 지키고자 한 석주는 체제의 이단아요, 중세기적

지배질서의 가치관에서 본다면 시대의 낙오자였음이 분명하다. 석주의 이러한 局外者적 측면에 기초하여 그를 方外人으로 규정하고 그의 문학 역시 방외인 문학의 관점에서 파악코자 한 시각이 있었던바¹⁾, 이러한 연구 시각은 그의 현실 인식 태도와 삶의 궤적이 모두 고려된 결과일 것이다. 사실 석주문학의 방외인 문학적 성격은 이미 당시의 문인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바다. 그가 「宮柳」詩로 인해 광해군의 친국을 받을 때 참석하였던 李恒福은 啓를 올려 그가 方外之士임을 말한 바 있고²⁾, 象村 申敏은

공은 청렴·疎誕하게 살며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고, 物外를 방랑하며 시와 술로 스스로 즐겼다.³⁾

라고 하여 그가 방외인의 삶을 영위하며 詩酒를 벗하였음을 밝혔다. 방외인 문학이 사대부 사회의 모순의 산물인바, 격렬한 비판의식의 소유자들은 자신을 관인적 생활이나 처사적 생활 어디에도 안주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체제의 바깥으로 이탈시키고 말았으며, 이들은 중세기의 반체적인 인간유형으로서 저항의식을 행동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放達不羈의 고립된 인간으로 방황하면서 기껏 문예의 창작에다 자기의 고뇌를 토로하고 해소했다고 한다⁴⁾ 석주는 바로 이같은 개념에 부합되는 인물이다. 그는 落拓者로서 반평생 동안 風埃를 쫓다가 보니 壯志는 증도에 격여 버리고 그저 자취를 屠市 가운데 숨기고 헛되이 우국충정의 노래 부르며 스스로 슬퍼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⁵⁾

1) 朴茂瑛, “權輶漢詩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4. 5, p. 30.

蔡龍福, “石洲詩研究”, 伏賢漢文學研究 2집(부현한문학회, 1984. 2), p. 130.

2) “白沙李公恒福 時參鞠 避席啓曰 權某一方外士也.”(尹拯, 重蒙教官贈司憲府持平石洲權公行狀, 明齋遺稿 권43, 48頁).

3) “象村申文貞之言曰 公清疎邁往 不拘小節 放浪物外 詩酒自娛.”(同上, 49頁).

4) 林炎澤,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角(창작과비평사, 1984), p. 362.

5) “……我亦落拓者 半世趨風埃 欲陳濟時策 天門何崔嵬 茫然撫鬚昔 壯志中途摧 托迹屠市中 燕歌空自哀……”(權輶, 贈林子定愔, 石洲集 권1, p. 33). (이하 page는 午成社 영인, 1983의 것임. 권1: 33과 같이 표시함).

석주의 이같은 모습은 그가 기질적으로 時俗에 얽매이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자닌 바의 詩才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강한 자부심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한문학사에서 가장 활발한 문필활동이 펼쳐졌다고 일컬어지는 穆陵盛際의 시기에, 고려 때부터 계속되어 온 宋詩 숭상의 풍조가 唐詩 숭상의 풍조로 바뀌는 종종조 이후 출현했던 朴祥·申光漢·金淨·鄭士龍·盧守愼·黃廷彥·三唐詩人 등의 뒤를 이어 學唐의 풍상을 지속하고 나름의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석주 자신이 지니고 있었고 또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문학적 재질에 말미암는 것이다. 특히 그는 詩에 대한 집착을 “魔”라고까지 표현하여 자신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不爭榮利不爭名	榮利도 명성도 다투지 않고
無食無家了此生	음식도 집도 없이 이 생애 마치려네,
尙有一魔除未盡	오히려 아직 다 없애지 못한 한 마귀 있으니
夢中詩律太淒清	꿈 속에 얻은 시 너무 슬프고 맑구나.

(十日夜夢……紀異, 권7: 284)

세상의 온갖 영예와 利俗에 대한 미련은 초월할 수 있으나 단 하나 마귀같이 달라붙은 詩에 대한 미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일생을 살면서 자기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를 쓰고, 또 한편으로는 체제의 질곡에 신음하는 민중들에게 따뜻한 애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끝내 「宮柳」詩로 인해 詩禍에 걸려 죽기까지 아무데도 거리낌 없이 종횡무진 시를 창작하면서 不羈人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석주의 이러한 삶의 궤적으로 말미암아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그의 생애와 함께 社會詩 및 시정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⁶⁾ 한편으로는 석주

6) ○金基會, “權石洲의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71. 11.
○韓福順, “石洲 權輶의 詩精神研究”, 성신여대 석사논문, 1982. 12.
○허권수, “권필 한시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82. 12.

시의 美的 範疇에 입각한 美意識의 표출양상이 고찰되기도 했고⁷⁾, 그의 傳作品들에 대한 考究가 있기도 했다.⁸⁾ 또 한 연구자에 의해서는 석주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이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⁹⁾ 이렇게 본다면 석주시에 대한 연구는 일견 완성된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석주의 다양하고 발달한 시세계는 특정한 한 방면의 연구만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석주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그의 생애사적 여정, 즉 放外人的 삶의 방향 설정 과정과 시인의식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석주의 한시세계를 조망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두 방향으로 시각을 나눌 것이다. 즉 현실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갈등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적 자아의 대응방식의 측면과, 현실을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측면에서 살펴보아 그것을 일관하는 시정신을 추출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석주시의 면모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리라 기대된다.

○오세옥, “권필문학에 나타난 갈등극복의 구조”, 연세대 석사논문, 1983. 7.

○宋宰鏞, “權石洲 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1983. 7.

○蔡龍福, 앞의 논문.

○權寧宇, “石洲 漢詩研究”, 漢文學研究 5집(啓明漢文學研究會, 1988. 2).

○李敏弘, “石洲詩의 品格研究”, 韓國漢文學研究 9·10합집(한국한문학회, 1987. 12).

7) 朴茂瑛, 앞의 논문.

8) ○蘇在英, “石洲 權輶小論”, 論文集 6집(송전대 인문과학연구소, 1976. 3).

○_____, “權輶論”, 韓國文學作家論II(형설출판사, 1986).

○허경진, “酒肆丈人傳에 대하여”, 동방학지 27집(연세대 국학연구원, 1981. 6).

○金昌龍, “酒肆丈人傳에 나타난 邵康節 배격의 意義”, 한성어문학 2집(한성대 국문과, 1983).

○_____, “郭索傳研究”, 동방학지 36·37합집(연세대 국학연구원, 1983. 6).

9) ○鄭珉, “石洲 權輶의 詩世界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1984. 12.

○_____, “石洲詩의 두 모습”, 韓國學論集 8집(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5).

○_____, “石洲 權輶과 東岳 李安訥의 대비적 고찰”, 韓國學論集 10집(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6. 6).

○_____, “石洲詩의 矛盾衝動과 遠隔意識”, 韓國漢文學研究 9·10합집.

II. 方外人的 삶의 方向과 詩人意識

A. 方外人的 삶의 方向設定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석주의 가문은 대대로 文翰을 업으로 삼아 온 전형적인 문인 집안이었다. 9대조 菊齋 權溥(1262~1346)가 安珦의 門人으로 성리학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고, 6대조 陽村 權近(1352~1409)이 조선초 최초의 大提學을 맡는 등 文翰에 종사한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의 부친 翫齋 權擘(1520~1593)은 시와 문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 종종·인중·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明使를 맞아 製述官·從事官을 지내는 등 국가의 공식적인 문장과 시를 제출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다. 특히 시는 申光漢(1484~1555)을 사사하여 이름을 떨쳤는데, 석주는 곧 부친의 가르침을 받고 그 餘緒를 이어 시작에 전념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장점을 취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니 논자들이 그를 나라의 正宗으로 삼았다는 것이다.¹⁰⁾ 이같은 가문의 전통과 부친의 영향 아래 석주는 일찍부터 시문과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6형제의 다섯째인 만큼 형제들과 함께 詩作을 익히며 어릴 때부터 문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둘째 兄 輶과 세째 형 輶이 당대의 詞人 松江 鄭澈의 門下에 나아가 배움을 받는 상황에서 그 역시 송강의 훈도를 받았다. 이것은 西人 계통 가문의 영향에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석주는 개인적으로 송강의 풍류를 크게 사모하여 23세 때는 東岳 李安訥과 함께 江界에 귀양이 있던 송강을 찾아가니 송강이 천상의 두 謫仙을 얻었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¹¹⁾ 또한 牛溪 成渾의 인품을 사모하여 그가 살던 파평까지 여러 번 찾아가 배우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이 걸으로 나타난 석주의 문학적 배경이 된다. 그리고 타고

10) “然自輶父擘 師事申光漢 以詩擅名 輶承其緒 專力爲詩 盡集諸子之長 而自成一家 論者推爲國朝正宗”. (光海君日記 권52, 四年壬子 四月丙寅條).

11) 李肯翹, 국역 연려실기술 V.5(민족문화추진회, 1984), p. 83.

난 재질이 뛰어나 9세기 때부터 글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으나¹²⁾, 이것이 곧 석주가 일생 동안 중세기적 지배질서 체계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국외자로서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를 쓰며 불우하게 살도록 한 직접적인 계기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물론 일차적인 소인은 석주 자신의 천성적인 기질에 연유할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의와 비인간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되면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고야 마는 정의감의 소유자였다. 어릴 때 지었다고 하는 다음의 작품에서 우리는 석주의 비분강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驅車兒

三十四猶總角
有廬不居田不耕
年年伐木在山谷
借間伐木何所用
長安城中起樓閣
樓閣連雲山木盡
官家催促無虛日
城南昨夜飛雨滑
陌上春泥深沒膝
竟日十步五步間
牛飢無草兒不食
兒不食尙可
牛飢恐失足
驅車兒兒有辭
傍人問之亦悽惻
兒驅牛牛駕車
牛蹄躑躅車輾輾
輾輾躑躅十餘歲
兒身無子牛無犢

수레몰이꾼

삼십, 사십살이 되어도 오히려 총각.
집 있어도 못살고 밭 있어도 못갈고
해마다 나무베며 산골짜기에 있네.
문노니, 나무베어 무엇에 쓰나?
장안 성중에 누각을 세운다오.
누각은 구름을 잇고 산에 나무는 다했어도
관가의 재촉은 쉬는 날 없네.
성 남쪽엔 어젯밤 비날려 미끄럽고
두둑길 봄 진창은 무릎까지 빠지네.
종일해도 열 걸음에서 다섯 걸음 사이
소는 주려도 풀이 없고 몰이꾼은 밥 없네.
몰이꾼 굶주림은 그래도 낫지만
소 굶주림은 실죽할까 두렵네.
수레몰이꾼이여, 몰이꾼도 할 말 있어
옆 사람이 물어보고 또 붙쌍해 하네.
몰이꾼은 소 물고 소는 수레 끄니
쇠굽은 터벅터벅 수레는 베껴베껴
베껴베껴 터벅터벅 십여년에
몰이꾼은 자식없고 소는 송아지 없네.

12) “先生生而簡異·九歲能綴文”(尹拯, 앞의 책, 46頁).

一朝牛斃兒亦死
 官家何處施鞭朴
 願將此意叫天聞
 乃時下令除苦役
 兒但與牛相對眠
 日長村巷桑麻綠

하루 아침에 소 죽고 수레꾼도 죽으면
 관가에선 어디에다 채찍하라.
 바라건대 이 뜻을 임금님께 아뢰어
 때에 맞게 명을 내려 고역을 면제하리.
 물이꾼은 단지 소와 마주 대하여 잠자는데
 해진 시골 길엔 뽕과 삼이 푸르구나.

(驅車兒, 권2 : 67-8)

관의 부역에 시달리는 수레물이꾼의 苦役의 현장을 보고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 성내에 누각을 세우기 위한 벌목 작업에 동원된 한 백성이 자신의 집과 농사는 팽개치고 부역에 시달리는 정상을 그렸다. 물이꾼이나 소나 할것없이 모두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육체적 한계에 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계속 몰아부쳐 작업을 재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서정자야는 관찰자로서 傍人이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란 바로 '임금께 아뢰어 그 부역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다. 봉건체제 하에서 절대선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군왕이라는 인식이 당시에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큰 벽이라 할 때, 임금께 아뢰는 길은 정당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계속되는 한 어떤 한 사람의 신역을 면해주면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구조 전체에 대한 통찰에까지는 아직 석주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兒時作'이라는 단서가 하나의 방패막이 구실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석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나, 감정적 차원에서나마 백성들의 질곡에 동정하고 거기에 연민의 정을 보낼 수 있는 기질적 소지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마련되어 있었고, 이것이 장차의 어떤 계기와 연결되어 그가 방외인으로 일생을 마치게끔 한 소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보여준 하층민에 대한 이같은 석주의 태도는 그의 평생을 통해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배층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으로까지 발전되어 일상에서 부딪치는 제반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

타나게 되었다.

저는 타고난 성품이 疎誕해서 時俗과 어울림이 적습니다. 늘 으리으리한 집을 만나면 반드시 침을 뱉고 지나고, 누항의 초라한 집을 보면 반드시 배회하며 돌아보면서 팔을 베고 누워 물만 마시고 있더라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본 듯이 생각했습니다. 매양 높은 벼슬아치로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하는 자를 만나면 중놈같이 천하게 여겼으나, 기개있는 개백정으로 향리에서 천대받는 자를 보면 흔쾌히 따라 놀기를 바라며, “슬픈 노래 부르며 강개해 하는 사람을 본 듯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時俗에서 괴상하게 보이는 까닭이지만, 저 또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고 싶지 않아 장차 산야에 물러나 마음을 거두고 性을 길러 옛사람의 이른바 道라는 것을 구하고자 생각했습니다.¹³⁾

물론 이 인용문은 자신의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겠으나, 그 기본 입장은 명백하다. 이른바 부와 권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실 속에서 석주는 있는 자나 누르는 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없는 자, 억압받는 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비록 체제의 개혁이라는 실천적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체제 속에 편입되어 백성 위에 군림하는 데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려서부터 지녀온 이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결국 그는 과거를 통해 입신하는 길을 포기하고 야인으로 서, 방외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라 하겠다.

그가 과거를 포기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기록에 따라 조금 달리 나타난다. 「行狀」에는 그가 19세(1587) 때에 초시와 복시에 모두 장원했으나 한 자의 誤書로 말미암아 黜榜당한 이후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했고,¹⁴⁾ <연려실기술>에서는 사모하던 松江 鄭澈(1536~1593)이 死去

13) “僕受性疎誕 與俗寡諧 每遇朱門甲第 則必唾而過之 而見陋巷蓬室 則必徘徊眷顧 以想見曲肱飲水而不改其樂者 每遇紅青拖紫 舉世以爲賢者 則鄙之如奴虜 而見任俠屠狗爲鄉里所賤者 則必欣然願從之遊 曰庶幾得見悲歌慷慨者乎 此僕之所以見怪於流俗 而僕亦不能自知其何心也 以此不欲與世俯仰 思將退伏山野 收心養性 以求古人所謂道者。”(答宋弘甫書, 別集 권2 : 433-4).

14) “十九魁發解 覆試又魁 以一字誤書見黜 自是不赴應舉.”(尹拯, 앞의 책, 46頁).

한 후에 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더욱 통함으로 여겨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했다.¹⁵⁾ 두 기록 모두 석주 자신의 언급이 아니고 뒷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신봉할 수는 없지만, 그가 1587년 이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자가 당시에 忌諱되는 문자를 썼기 때문이라고 바라본 시각은 기질적으로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의 성격과 관련시켜 해석한 것이고, 후자가 흠모하던 송강의 죽음과 관련한 당쟁에 연결시킨 것은 西人이라는 석주 가문의 정치적 색채 및 당시의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해석이라 하겠다. 요컨대 이 두 요인이 상호 복합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석주의 삶의 궤적과 연결시켜 또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 師友의 관계이다. 앞서 송강·우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그 밖에 李安訥·具容·趙緯韓·趙纘韓·李春英·許筠등과의 교우관계는 남다른 것이었다. 특히 東岳 李安訥은 그와 함께 二才로 병칭되던 인물로서 석주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우정으로 친교를 유지했다. 석주가 李廷龜의 추천으로 그의 생애에 유일한 관직이었던 동몽교관을 제수받았을 때, 동약은 그의 곤궁한 생활을 염려하여 취임할 것을 권하는 詩를 임지인 端川에서 지어 보내기도 했다.¹⁶⁾ 그러나 석주는 東帶하고 예조에 參謁해야 한다는 말에 斗升의 곡식을 위해 허리를 꺾는 일은 素志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¹⁷⁾

이와 같은 교우관계는 상호 이해의 기반 위에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석주가 그의 인생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는 두 인물이 있다. 바로 洪至誠(1528~1597)과 鄭樞(1533~1603)이 그들이다.

홍지성은, 南陽府 향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뛰어난 詩才로 吏役을 벗어나 金宗直에게 수학하고 金時習·金宏弼·南孝溫 등과 物外的 교유를

15) “(權輶)少慕鄭澈風誼……尤痛澈至死後獲罪 遂不復應舉.”(李肯翊, 앞의 책, V.5, p. 581).

16) “愛爾江湖士 才高性不羈 俗徒今共忌 恩命竟何事 捧檄非干祿 監門且避時 童蒙教授職 況乃是人師.”(李安訥, 聞石洲權汝章除授童蒙教官勸令就任, 東岳集 권6, 端川錄, 17頁).

17) 尹拯, 앞의 책, 47頁.

맺었던 洪裕孫(1445~?)의 아들이다.¹⁸⁾ 그는 석주가 작성하다 완성하지 못한 「師友錄」의 모두에 실린 인물로서, 석주는 그를 스승으로 섬기며,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품이 高雅·儉率했을 뿐만 아니라 몸가짐과 대인관계가 남달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¹⁹⁾ 석주 자신의 이같은 언급으로 보아 석주는 그의 생활태도와 처신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정작은, 그의 형 鄭礪(1506~1549)과 함께 한국 도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다.²⁰⁾ 그는 詩作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뛰어났고 方藥과 風鑑術에도 통달하여 왕왕 奇驗이 있었으며, 바깥 세상의 일은 모두 버리고 술에 의탁하여 살았다고 한다.²¹⁾ 석주는 정작의 죽음을 당해 다음과 같은 애도의 시를 지었다.

歎息神仙表	탄식하노니, 신선의 모습으로
平生夢想中	평생을 몽상 속에 살았구료.
大名詩價重	큰 명성에 詩價가 중하더니
浮世酒壺空	부질없는 세상에 술집이 비었구나.
天欲窮吾輩	하늘이 우리들을 궁색하게 하였지만
人誰惜此翁	어떤 사람이 이 노인을 애석해 하랴.
一哀無限淚	한결같은 슬픔에 무한히 눈물지며
回首向西風	머리 돌려 가을 바람을 향하네.

(哭古玉鄭先生碁, 권2 : 140-1)

석주는 정작의 죽음에 대해 “하늘이 우리들을 궁색하게 한다.”고 하면서 애통한 뜻을 표했다. 아무도 애통해 할 사람조차 없는 이 노인의 죽음을 홀로 애통해 하면서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이것은 바로 그가 정

18) 洪裕孫의 生平에 관해서는 張志淵, 逸士遺事(회동서관, 1922), pp. 142-3 참조.

19) “高雅儉率 持身接物 殊與世不相類 以故人多笑之”. (師友錄, 別集 권2 : 452).

20) 李能和, 李鍾殷역주, 朝鮮道敎史(普成文化社, 1986) 참조.

21) “喜吟詩 草隸亦工 傍通方藥風鑑之術 往往多奇驗 而遺外事 託於麴蘖以逃焉.”(張維, 北窓古玉兩先生詩集序).

작에게 상당한 호감을 지니고 있었고, 자기도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나이로 보아 스승뻘인 정작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석주집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홍유손이나 그의 아들 홍지성, 또는 정작이 모두 도교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권필 또한 젊어서 도교사상에 깊이 침잠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²²⁾, 석주가 삶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받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은 실로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정, 곧 천성적으로 남에게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불합리한 일애 대해서는 공분을 참지 못하는 기질과 당대 사회현실 및 정치현실 속의 제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불우한 처지 속에서 방외인으로 나름의 가치관에 입각한 삶을 살아온 은사들의 영향 및 가문의 문학적 전통 등과 관련하여 석주는 결국 중세기적 질서 속에서 사대부 출신의 보편적 삶의 과정이라 할 出仕의 길을 포기하고 야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봉건통치 체제 속에 편입되어 단지 한 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 그의 성격과 기질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출사의 길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당시의 정치현실로부터 배척당한 소극적인 의미의 선택 곧 낙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주체적·능동적으로 체제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의지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타고난 신분적 불구로 말미암아 落拓된 삶을 살았던 조선조의 수많은 비양반층 인물들과는 다른 점이며, 스스로를 체제의 울타리 밖으로 뺄까치고 방외인으로서의 생을 마친 김시습, 남효온 등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체제 속에 편입된 관료의 시각보다 더 치열한 현실의식에 바탕하여 당대 현실의 부조리를 시로써 풍자하고, 또 자신의 삶을 반성하였던 것이다.

22) 예컨대 「病中聞夜雨有懷草堂因叙平生二十四首」(권7 : 275) 중 제19수의 “少讀仙經慕伯陽 中年耽酒趁風光”과 같은 것들이다.

B. 詩人意識의 側面

석주는 그의 일생에 걸쳐 부딪히는 온갖 시름과 고독을 술과 시를 통해 해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신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선택한 길이라 해도 출사를 포기한 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술을 통해 세상을 잊으려 했고, 시를 통해 그 울분을 토로했다.

百年契闊詩千首	한 평생 소활하게 시 천수 지었는데
萬事驅除酒一缸	만사를 몰아내는 것은 술 한 항아리로다.
半夜虛簾風雨鬧	한밤 텅빈 처마에 비바람이 요란하니
夢成欹枕聽寒江	꿈 속 잠자리에선 차가운 강물소리 들겠네.

(夜雨雜詠四首, 제4수, 권7: 246)

시주를 벗삼아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특히 술의 효용을 “萬事驅除”, 즉 망각에서 찾고 있다. 현실의 가난과 고통을 술을 통해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술을 통해 그것들을 잊어 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현실도피적 자세에 불과하다. “술이 훌륭한 벗이요, 꿈 속이 훌륭한 거처로다.”(歡伯是良友 睡鄉是廣居)²³⁾라는 고백에서 보이듯이 술은 꿈 속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훌륭한 도피처이다. 그러나 단순한 도피처로서의 소극적 의미 이상의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즉 한 잔이면 만물을 잊을 수 있으니 세상의 이해관계나 현실적 제반 상황에 의해 남에게 속박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곧 세상의 시비곡직에 휘달려들지 않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²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비없는 세상, 자신의 참됨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한 소망치, 이상향으로서의 ‘醉鄉’이라는 개념이 상징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실천성이 배제된

23) 「用前韻呈石田」(別集 권1: 403).

24) 「題魏生」(권1: 56-7)에서 “世路極險巖 吾身安所歸 幸有魏秀才 風味不我違 平生老瓦盆 白首相因依 一盃遺萬物 寧復爲人鞿……回語獨醒人 醉鄉無是非.”라고 하여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다.

관념상의 의미부여에 머물고 만다.

앞에 인용한 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시는 석주의 생애에 있어서 술과 함께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케 해주는 참으로 중요한 동반자적 도구였다. 불행하게도 현재 그가 남긴 詩論이나 시비평의 자료가 남은 것이 없어서 그가 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시의 효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시편들 속에 담겨진 시에 대한 인식과 효용성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 개략적이나 그 면모를 엿볼 수는 있다.

우선 석주는 詩作이 가문의 世業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랑스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생질 尹雲衢에게 “詩句를 제작함은 우리의 가업이니/너희들은 그 풍류를 전해야 하리.”(詩句吾家事 風流爾輩傳)²⁵⁾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업을 계승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표하고 있다. 사대부들이 시작을 餘技로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말이 결코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언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출사를 포기하고 사는 야인으로서의 석주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이 말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陽村 이래의 관료적 문인이 대를 이어온 석주의 가문에서²⁶⁾ 시작의 전통이 성격을 달리 하여 忠君愛國의 관각문학에서 벗어나 왜곡된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모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되 비판적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江華 五流川 변에 지은 草堂에 題한 시에서 “작은 시가 도리어 스스로 일과가 되니/사는 일이 온통 한가롭지만은 않네.”(小詩還自課 生事未全閑)²⁷⁾라고 하여 詩作活動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詩에 있어서 수사나 기교를 중시하지 않았다. “시를 써서 아침 저녁을 기록할 뿐/아름다운 시구를 필요로 하지는 않네.”(書詩記朝夕 不是

25) 「尹甥從余于江都……賦短律爲別」(권3: 157-8).

26) 陽村 權近의 문학은 應製詩와 같은 “溫醇典嚴” “平淡溫厚”한 시세계 및 교서·冊·表箋·贊·劄子 등 문학성이 거세된 議論體의 館閣文學에서 뛰어났다고 평가된다. (閔丙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1집, 한문교육연구회, 1986. 12, pp. 44-5 참조).

27) 「題草堂」(권3: 144).

要佳句)²⁸⁾라고 하여 표현기교보다는 담겨진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같은 인식은 그가 시의 사회적 효용성을 풍간정신에 두고 있었던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다.

석주가 시의 풍간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宮柳」시로 인해 광해군의 친국을 받을 때의 대답이다.

대저 옛 시인들은 興에 의탁하여 規戒하고 풍간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臣도 이를 모방하여 그렇게 하였읍니다. 任叔英이 布衣의 선비로서 敢言함이 이와 같은데도 조정에는 直言을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 제공을 기계하고 풍간하여 면려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신은 어려서부터 다른 것은 배운 바가 없고 다만 시를 지을 줄 알기 때문에 任某의 일을 당하여 문득 조그만 시를 지었을 뿐입니다.²⁹⁾

이같이 석주는 詩經의 풍간정신을 시의 효용성으로 파악하여 예로부터 정치현실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시로 풍간하여 왔음을 말하고 있다. 불의를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기질적 과감성을 시에 반영하였음을 뜻한다. 석주 자신도 임진왜란 때 벗 具容과 함께 당시의 대신 李山海와 柳成龍을 誤國의 책임을 물어 목벌 것을 상소하고, 강화에 있을 때에는 弑父罪人 梁澤이란 者가 뇌물을 써서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고 상소하여 처단 받게 하는 등 敢言之士의 모습을 보였지만, 任叔英이 別試에서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그 용기와 정의감을 극구 찬양하고 나섰다.

莫唱行路難

聽我西河歌

西河有直士

前後皆蹉跎

浮雲軒冕何足道

「행로난」을 노래하지 말고

이 내 「서하가」를 들어보소.

서하에는 곧은 선비들이 있으니

앞, 뒤 사람 모두 불운하도다.

뜯 구름같은 높은 벼슬 따위야 어찌 말할 바라.

28) 「獨酌有詩三首」(권1 : 32), 제3수.

29) “大抵古之詩人有托興規諷之事 故臣欲倣此爲之 以爲叔英 以布衣敢言如此 而朝廷無有直言者 故作此詩規諷諸公 冀有所勉勵矣……臣自少無他所學 只解作小詩 故遇某事輒作小詩而已.”(光海君日記 권52, 四年壬子 四月丙寅條).

美名百世應不磨	아름다운 이름은 백세토록 닳아지지 않으리.
林西河	서하 林椿
任西河	서하 任叔英
才高命薄知奈何	재주 높으나 운수 박함을 알은들 어찌리
古來此輩何其多	예로부터 이런 무리 어찌 그렇게 많았던고.

(西河歌, 권2 : 102-3)

고려 무진집권기에 현실과의 괴리감 속에서 불우하게 생을 마친 林椿과 任叔英을 동일선상에 놓고,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 기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측면이 곧 석주가 파악한 시의 사회적 효용성이라 할 때, 그렇다면 그 자신에 대해 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명은 현재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자신의 언급대로

國初로부터 지금까지 述作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과 눈이 모두 妙解함을 께똥음에 있어서는 나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네.³⁰⁾

라는 강한 자부심에서 알 수 있듯, 시는 바로 그 자신을 지탱하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사회적 자아의 실현이 차단된 현실에서 오직 매달린 것은 시밖에 없었으니 시는 곧 自我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書劍從來兩不成	文武를 좇았으나 이름이 없었으니
非文非武一狂生	文도 무도 아닌 한 미친 이라고.
他年洛下如相問	다음에 서울에서 혹시 물어보신다면
酒肆兒童盡識名	술집의 아이놈도 모두 내 이름 알 것이오.

(贈高陽品官, 別集 권1 : 428)

시에 관한 이같은 자부심과 함께 시는 그에게 시름을 풀어주는 효용성

30) “自國初至今 述作或有過我者 若其心眼俱到透得妙解 無如我者。”(鄭弘溟, 畸翁漫筆, 大東野乘 권54).

을 지니기는 했으나³¹⁾ 결코 그것이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성을 갖지는 못했다. 시를 짓는 것이 수심어린 마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³²⁾ 구차한 생활을 구원해 줄 수도 없었다. 자아 실현의 유일한 도구로 선택한 시였으나 그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잘못 文筆을 잡아 시작을 배웠더니/몸 바깥에 헛된 명성있으나 뜻은 스스로를 속이네.”(誤將鉛槧學題詩 身外浮名意自欺)³³⁾라는 강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詩魔”라고 표현했듯 시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시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타고난 시인이었다. 죽기 사흘 전에 썼다고 하는 「絕筆」시는 바로 그의 이러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平生喜作俳諧句	한 평생 우스꽝스러운 구절 짓기를 즐겨
惹起人間萬口喧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시끄러움 일으켰네.
從此括囊聊卒歲	지금부터 입 다물고 생애 마치려 하나니
向來宣聖欲無言	예로부터 공자께서 말씀 없으시고자 했네.

(絕筆, 권7: 291)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시인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시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마저 시로 표명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석주는 당대 사회의 제반 모습을 자기의 확고한 기준에 비추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남에게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기질적인 바탕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즉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비판정신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여 체제 자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단계에까지는 석주의 의식이

31) “詩能遺悶時拈筆.”(戲題, 別集 권1: 381).

32) “吟詩不用愁肝腎 學道忘言是丈夫.”(次崔天使廷健途中感懷韻代連接使作, 권4: 185).

33) 「病中聞夜雨懷草堂因叙平生二十四首」(권7: 276), 제22수.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현상의 질서를 불합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마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고난받는 피지배층에 대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시류를 타고 갑자기 권세를 부리는 세도거나 대대로 극락을 먹으면서 부귀를 누리는 벌열세족에 대해서는 비판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비판과 반성을 시로 표현했다. 아무런 비판의 의식없이 그저 흘러가는 역사 속에 몸을 맡기기도 살아 있는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와 같은 의식과 함께 그는 시의 효과적인 형상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기행시나 정물시에 있어서는 寫景의 전통적인 結句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 현상의 비판이나 개인적 정서의 표현을 위해서는 寓意의 방법, 夢想的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기했다. 이러한 방법은 당시 현실의 忌諱를 피하기 위한 편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표현의 효과를 위한 의도적 장치일 수도 있다. 詩의 형식에 있어서도 근체시보다 고체시 형식에 특장을 보이고 있는바, 이것은 그의 시정신의 유장함 및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의 시적 역량과 관련시킬 수 있다. 문집 권8에 실린 雜體詩 형식, 곧 禽言體·回文體·連環體·建除體·數詩·禪頌體 등은 흔히 호사가들이 재미삼아 창작해 보는 戲作的 경향이 강한 형식이지만, 스스로 시인임을 자처한 그가 다양한 시체를 시험해 본 것은 시인의식의 확대 및 새로운 가능성의 시도라는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石洲의 漢詩世界

A. 現實葛藤과 自我實現의 側面

석주의 시에는 자기의 삶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모색하는 시편들이 많다. 일찌기 삶의 방향 설정 문제에 있어서 출사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는 하나, 그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有物絕名相
所以能物物
心如寒江水
印得空界月
一自混沌死
萬法從此別
諸佛亦微塵
群經皆妄說
何人強解事
作此淡生活

어떤 사물에서 이름과 모습이 분리됨이
능히 사물을 사물이게 하는 까닭이네.
마음은 찬 강물과 같아서
허공계의 달이 비칠 수 있네.
일단 혼돈이 죽은 뒤로부터
온갖 법칙이 이로부터 나뉘져 버렸네.
三世의 제불 또한 티끌이요
못경전 모두 허망한 말씀이로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이해할 수 있으랴
이 시를 지어 생활을 담담히 하네.

(次山人處英詩韻, 권1 : 60)

불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물을 사물 그대로 보아야지 이름·모양과 같은 외형적인 것과 관련시켜 그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천지 개벽 이전의 元氣가 未分하여 한데 엉킨 混沌의 상태가 깨어진 이후부터 온갖 이치들이 분화함으로써 세상의 是非曲直의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현상을 현상 그대로 파악하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데에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가 사물 인식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다음 시는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의 지적이다.

我聞群聖人
相傳唯此心
所貴守本性
不爲外物侵
窮持顏巷瓢
達作商家霖
行身依典禮
可托君子林
其餘反是者

내 듣기로, 못성인들은
서로 전함이 오직 이 마음이라 한다.
귀하게 여긴 바는 본성을 지켜
外物의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네.
궁하면 안희의 누항단표의 삶을 지키고
현달하면 백성들의 단비가 되는 것이네.
몸 움직임을 典禮에 따른다면
가히 군자의 숲에 기댈 수 있으리.
그 나머지 이것에 어긋나는 사람은

未免爲昏淫 어둡고 음란하게 됨을 벗어날 수 없으리.

.....(下畧).....

(酒後示諸生, 권1: 49)

군자의 삶에 있어, 본성을 지키고 바깥의 유혹을 극복해야 함을 옛 聖人들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군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리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함과 아울러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外物에 대한 인식, 곧 근원적인 사물의 본질 파악에서부터 本性을 지키에 이르기까지 외물은 곧 眞相이 아닌 虛相이라는 인식은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이해에까지 연결된다. 석주는 자신의 곤궁한 생활 현실에 대해, “집짓 하늘의 뜻이 浮生에게 박한 줄 아노니/險阻艱難함이 참으로 배터질 지경이라/만사의 오르내림이 모두 외물이요/일신의 명예와 비방도 모두 헛된 이름이로다.” (故知天意薄浮生 險阻艱難實飽更 萬事升除都外物 一身譽毀總虛名)³⁴⁾라고 하여 현실에서의 삶의 부침이 모두 진정한 자아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힌다. 이것은 곧 그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보다 더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따로 설정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필자는 “浮生의 고락이 참으로 어지러운데/취하고 버림은 사람에게 말미암은 바이지 하늘에 달린 것은 아니네.” (浮生苦樂劇紛然 取捨由人不在天)³⁵⁾라는 구절에 주목한다. 현실적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이지 하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하늘은 곧 자연의 이치, 항상성을 뜻한다.

此意憑誰道

平生上有天

極知身是夢

聊用酒爲年

이 뜻을 누구에게 기대여 말할까.

평생에 위에는 하늘이 있네.

몸이라는 게 꿈인 것을 너무 잘 아니

그저 술로써 세월을 삼네.

34) 「書懷」(권4: 180).

35) 「舟次豆毛浦登申景昇亭子次壁上韻」(권4: 203).

物議隨時異	물 의는 때에 따라 다르고
人情逐勢偏	인정은 세력을 쫓아 치우치네.
吾聞宋榮子	내가 듣기도 송영자는
萬事一猶然	만사에 한결같다고 하네.

(述懷奇宋天翁, 권3 : 137)

수시로 달라지는 世論과 세력에 따라 치우치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길은 자연의 항상성에 따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세태에 편승하기보다 適意를 따르고 시편을 지으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⁶⁾ 이같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주는 결연코 자연(강화도)을 찾아 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³⁷⁾ 그러나 자연 속의 삶이 석주의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했다. 자연의 항상성을 추구하는 것이나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관념상의 구원 내지는 이상 상태의 설정이라는 의미를 지닐 뿐 그것 자체가 삶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과 같이 전원 속의 삶이 갈등을 해소해 주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도 있기는 하다.

避俗年來不過溪	속세를 피해 年來에 개울밖 벗어나지 않고
小堂分與白雲栖	작은 집을 나누어서 흰 구름과 함께 사네.
晴窓日午無人到	맑은 창엔 한낮에도 찾는 이 없어
唯有山禽樹上啼	오직 산새만 나무 위에서 우짖는구나.

(林居十詠, 제5수, 「無爲」, 권7 : 231)

자연 속에서 속세의 모든 것을 잊고 흰 구름과 산새를 벗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 시적 자아와 세계 사이의 갈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 36) “人生趣舍隨所適 且把詩篇慰朝夕.”(郊居忽有詩思……, 권2 : 85), “人生貴適意 局束欲何爲 寄語同心子 莫孤林下期 百年任醒醉 人知我是誰.”(獨酌有詩三首, 권1 : 31, 제1수).
- 37) “京口移家計已非 又將書劍決然歸 他時若問吾消息 海上孤村獨掩扉.”(歸江都留別邊明叔應, 권7 : 258).

이것은 현실이라는 상황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 곧 “피속”이라는 조건항이 전제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다. 석주 자신의 말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³⁸⁾, 이와 같은 조화로운 상태의 구가는 한갓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 또한 하나의 관념적 도피처에 지나지 못하고 만다.

①舉世皆明哲	세상 사람들 모두 명철한데
如何我獨頑	어찌하여 나만 홀로 완고하고.
跡超榮辱外	발자취는 영욕을 뛰어넘어 밖에 있으나
名在是非間	이름은 아직도 시비의 사이에 있네.
………(下畧)………	

(自詠, 別集 권1 : 351)

②風塵不到野人家	세상의 풍진이 야인의 집에까지 이르지 않아
獨掩衡門度歲華	홀로 누추한 문을 닫고 세월을 보내네.
莫笑此翁貧至骨	이 늙은이 가난이 뼈에 사무침을 비웃지 말게.
春來贏得滿山花	봄이면 온산 가득한 꽃을 얻게 된다고.

(春題, 別集 권1 : 418)

①에서는 몸은 자연 속에 있으나 이름자는 세속의 是非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②에서는 자연 속의 삶이 현실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드러낸다. 결국 그는 社會現實과 자연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온전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만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비하감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다음의 시가 이러한 석주의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 준다.

………(전략)………

皎皎平生心	맑고 깨끗한 평생의 마음
壺澗誰與語	담담함을 누구에게 말하랴.
手掇秋菊英	손으로 가을 국화 꽃을 따서

38) “處世豈免俗.”(曉諭車嶺, 권1 : 40).

願貽高丘女	高丘의 신녀에게 바치고 싶네.
佳期未易得	좋은 기약은 얻기 쉽지 않는데
歲暮徒延佇	새모에 목을 빼고 그저 바랄 수밖에.

(述懷, 권1 : 29—30)

석주의 이같은 모습이 어찌면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해 疎誕·放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³⁹⁾ 또는 不羈人으로서,⁴⁰⁾ 剛腸者·落拓者이자 가슴 속에서 불평이 울리고 있는 자로서,⁴¹⁾ 평생 奇怪함을 좋아하고 倡狂하다고 생각하는 자로서⁴²⁾ 스스로 지지리 못났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가슴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⁴³⁾ 현실의 어떤 처지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의식과 자괴감 속에서 석주는 극심한 고독감을 느껴야 했다. “풍진은 눈에 가득한데 知音은 적어/바닷가 산 속에 홀로 사립문 닫네.” (風塵滿眼知音少 海上千峯獨掩扉)⁴⁴⁾라는 것이 현실적 고독을 드러낸 것이라 한다면, 다음 시는 시대 상황 속에서 느끼는 처절한 고독감을 읊은 것이다.

行出郭北門	도성 북문을 나아가
日暮游江臯	날 저문데 강가에서 노닌다.
凝霜被百草	얼어붙은 서리는 온갖 풀을 덮었고
烈風聲怒號	매서운 바람은 노한 소리를 지른다.
原野何蕭條	들판이 어찌나 쓸쓸한지
極目唯蓬蒿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쑥대뿐이로다.
豈無同來人	어찌 함께 온 사람이 없으라마는
莫知我心勞	내 마음의 수고로움을 아는 이 없네.
所思在萬里	생각하는 바는 만리 밖에 있는데

39) 「四懷詩★序」(권1 : 15), 「具公受容將赴任金化枉書求詩」(권1 : 34), 「送李子敏安訥出守端川」(권1 : 45), 「憶舊遊五百字奉寄開城留守許令公潛」(권1 : 48).

40) 「夜坐書懷」(別集 권1 : 328).

41) 「題德陽遺稿後次蘇齋韻」(권4 : 192), 「贈林子定忞」(권1 : 33), 「奉別吳都司宗道三十韻」(권5 : 210).

42) 「憶舊遊五百字……」(권1 : 47), 「次韻宋子深長句見示」(권2 : 86).

43) 「自歎」(권3 : 130—1).

44) 「書懷」(권7 : 236).

茫茫隔風濤
孤雁西南翔
哀鳴求其曹
見此長嘆息
淚下沾寒袍

아득히 바람과 물결을 격하고 있네,
외로운 기러기 서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슬피 울며 그 무리를 찾는구나,
이를 보고 길이 탄식하노라니
눈물이 흘러 찬 도포자락 적신다.

(古意八首, 권1: 38, 제6수)

杜甫의 「孤雁」을 연상시키는 시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 줄 친구조차 없는 딱한 신세를 짝 잃은 기러기에 비유하고 있다. 제목에서 보이듯 그 자체가 현실의 상황은 아니지만, 작품에 설정된 상황은 현실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한 느낌이 있다. 이같은 상황과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현실 자체에서는 해결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석주는 그 해결의 방향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前畧)…………

夜歸寒擔臥
夢行湘水潑
臨水吊楚魂
碧水空沈沈
回首叫虞舜
但見雲外岑
古有遠別離
此恨寧獨今
去去勿復念
芳樽聊自斟

밤에 돌아와 차가운 처마 밑에 누웠다가
꿈 속에 상수 가에 갔네.
물에 다다라 굴원의 혼을 조상하였으나
푸른 물은 헛되이 조용하기만 했고,
머리 돌려 순임금을 부르짖었으나
단지 구름 바깥의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네.
예전에도 아득한 이별 있었으니
이 한이 어찌 지금뿐이라.
가고 가며 다시 생각을 말자.
향긋한 술잔이나 그저 기울이세나.

(感懷三首, 권1: 26-7, 제1수)

이 시의 전반부의 상황은 앞의 「古意八首」(제6수)와 거의 비슷하다. 어느날 마음이 울적하여 北林에 올라가니 우짖는 새들은 모두 짝이 있으나 客(서정자아)은 홀로 시를 읊는다. 미인은 하늘 끝에 있어 悵望히 상심하

다가, 수레와 배를 타고 찾아가려 하지만 길이 험해서 가지 못하고, 하늘 높이 나르는 기러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⁴⁵⁾ 이상과 같은 현실적 한을 꿈을 통해 해소시키고 있다. 꿈 속에서 서정자아는 예전에도 이별은 있게 마련이므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미인(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독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기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좌절된 자아의 소생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석주시에서 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 꿈은 그 자체가 현실의 뜻을 징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⁴⁷⁾ 현실에서의 모순이 제거된 뜻맞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⁴⁸⁾ 한편으로 시상 전개에 있어서도 하나의 의도적 장치로서의 구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그렇다고 하여 그가 현실의 간난과 질곡을 꿈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울분과 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의 획득에 머물렀을 뿐 진정한 마음의 평정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만사에 회포를 잊음은 오직 꿈 속에서요/평생 뜻을 얻음이 술 앞에서일세.”(萬事忘懷唯夢裡 百年得意是樽前)⁵⁰⁾라는 술회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자아의 갈등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굳다는 사실의 역설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석주의 문집에는 「記夢」이라는 시가 여러 편 실렸는바, 이 시들은 그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권1의 「記夢」은 여행 도중 말 위에서 읊은 기행시로서 客苦 속의 자신의 신세와 꿈 속에서 그려보는 가정생활의 이

45) “今日忽不樂 杖策登北林 雪消遠山淨 日落浮雲陰 蕭蕭叢薄間 磔磔喧衆禽 衆禽各有侶 客子方獨吟 美人在天端 假望傷我心 巾車欲有往 道路多嶮嶽 謁來理舟楫 滄海闊且深 坐看高飛鴻 涕下沾衣襟。”(感懷三首, 권1: 26, 제1수).

46) 이 시의 구조를 오세옥은 다음과 같이 도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세옥, 앞의 논문, p.75 참조).

〈객관적 세계〉 꿈→역사 ⇒ 극기
↑.....
 〈주관적 세계〉 현실→자연 ⇒ 실의

47) 「次使相答咸徒韻二首」(別集 권1: 373), 제2수, 「村居雜題三首」(別集 권1: 404), 제1수.

48) 「用前韻呈石田」(別集 권1: 403), 「村居雜題三首」(別集 권1: 404), 제3수.

49) 「夜坐醉甚走筆成章三首」(권1: 28), 제2수.

50) 「首夏村居睡起對酒」(권4: 180).

상이 차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前畧)………

斑衣上北堂
侍立双手拱
山妻語音好
春蠶方浮釜
小女始扶床
媿媿極可弄
中堂鋪綺席
棣萼羅伯仲
雕觴滿琥珀
畫燭生蟬螭
簪纓雜諧笑
粉黛多迅衆
孰知一餉間
喜事紛總總
耳邊溪水急
逸響風吹送

색동옷 입고 북당에 올라
모시고 서매 두 손을 맞잡았네,
산골 아내 말도 좋나니
봄 술이 항아리에 한창이라네.
어린 딸은 겨우 상을 잡고 서나니
귀여운 모습 더할 수 없네.
중당에 비단 자리 펼치고
우애로운 동기간 벌려 앉았네.
아로새긴 술잔에는 호박이 맑고
그림같은 촛불에선 무지개 솟네.
벼슬하는 이들은 농담 섞어 웃고
아름다운 여인네들 빠르고도 많구나.
누가 알았으랴, 창졸간에
기쁜 일들 어지러이 흩어질 줄을
깃가에는 개울물이 급하고
바람은 커다란 소리를 불어보내네.

………(下畧)………

(記夢, 권1: 41)

꿈에서 그려본 이상적 가정생활이 구체적 현실과 엄청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上爲父母 下爲妻子와 형제간의 우애 등 가정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유교의 이상적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시적 자아의 내부 갈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꿈 속에서의 가정 생활은 곧 그렇지 못한 현실의 관념적 대치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현실에서의 간난은 그 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 요컨대 몽중의 현실(이상적 상태)은 실제 현실에서의 갈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주는 역설적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권2와 권4에 실린 「記夢」시의 성격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다. 전자가 현실을 떠난 상태에서 추구되는 환상 곧 신선세계를 형상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면⁵¹⁾, 후자는 현실 상황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삶의 한 바람직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⁵²⁾ 그러나 현실과 유리된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 앞의 시에서조차 마지막에 “눈앞의 온갖 일들로 머리털 희려하니/어느 때나 길이 삼신산에 가 짓들리오.”(眼前萬事頭欲斑 幾時長往巢神山)⁵³⁾라고 하여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석주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상태에서 추구되는 환상 또는 이상 추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강한 족쇄로부터 일시적·심정적으로나마 벗어난 상태—곧 시적 자아가 용납되지 않는 현실 세계를 부정한 위에서 상정될 수 있는 이상적 상태—를 설정한 다음, 그것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설정된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구된 긍정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곧 석주시시에 있어서의 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석주의 현실에 대한 자아의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룬 한시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늘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아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디에서도 安心處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다. 현실과 자아가 조화를 이루기에는 그의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천성적 기질 및 자의식과 부조리한 당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이 너무 크고 깊었다고 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안주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와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 이것이 석주시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 향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석주의 시로 하여금 정체되지 않고 살아 생동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1) 「記夢」(권2 : 89).

52) 「記夢」(권4 : 191).

53) 주51)와 같음.

B. 社會現實에 대한 視角

석주의 당대 현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의감은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회시를 창작하게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그의 정신은 당연하게도 부조리 투성이의, 사회정의가 무시된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가 확보한 시적 세계는 독보적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문화적 역량과 재기가 발휘된 분야가 바로 이 사회시의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⁴⁾ 이것은 그가 시의 효용성을 풍간의 정신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체제의 지배질서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그의 방외인적 삶의 궤적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그는 체제의 틀 바깥에 위치함으로써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포괄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여기에 바탕한 전체적 조망 위에서 사회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석주의 사회시에서 관심의 방향은 시의 대상에 따라 몇 가지로 범주화시켜 볼 수도 있으나, 그 바탕에 깔린 정신은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곧 정의로운 사회에의 염원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배계급의 횡포에 대해서는 비판과 풍자를 마지 않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을 나타냈다. 새로운 사회에의 전망을 작품 속에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당시 사회의 실상은 충실히 작품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그는 시의 대상을 사회 현실과 역사적 사건 모두에서 취하고 있지만 특히 20대의 나이에 겪은 임진왜란의 경험은 그의 시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임진왜란은 민족적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석주 개인에게도 쓰러린 체험이었으니, “지하에는 새 귀신이 많고/술잔 앞에는 친구가 적네.”(地下多新鬼 尊前少故人)⁵⁵⁾라는 말이 이 점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延城客舍寄人」(권4 : 170)과 「宿大津院」(권7 : 229)이 각기 전쟁 도중과 전쟁

54) 석주의 사회시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석주문학에서 차지하는 사회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55) 「有歎」(권3 : 107).

후에 느낀 감회와 고난을 읊은 것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증언하고 있다면, 「馬上口占」(別集 권1:362)·「海村雜興」은 전쟁의 비극성뿐 아니라 당대 조정 대신의 무능까지를 통박하고 있다.

自從蠻醜犯天威
戰士如今尙鐵衣
三關殿臺秋草沒
八州民物曉星稀
張鷟入海無消息
秦檜當朝有是非
蠡蝨小臣何所補
百年林下掩柴扉

오랑캐가 하늘의 위엄을 범한 이래
전사들은 지금껏 갑옷을 입었네.
세 궁궐의 전대는 가을풀에 묻혔고
팔도의 民物이 새벽 별처럼 드무네.
장건같은 장수는 바다에 들어 소식이 없고
진회같은 간신이 조정을 맡아 시비가 있네.
서캐·이같은 조그만 신하 무슨 도움이 되랴.
일평생 숲 속에서 사립문 닫고 있네.

(海村雜興, 別集 권1:397)

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와 백성들의 삶의 곤궁함이 극에 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는 張鷟같은 이 없고 秦檜같은 소인배가 들끓어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나라를 그르친 책임을 물어 이산해와 유성룡을 목베어야 한다고 상소했던 석주의 현실인식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석주는 조정대신들의 구국의지를 신봉하지 않고 오히려 草野에서 왜적과 싸운 의병들의 의기와 충절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高敬命(1533~1592)의 애국충절과 순국정신을 극구 칭송하고 있는 것이나⁵⁶⁾ 꿈 속에서 金德齡(1567~1596)의 「醉時歌」를 읽고 그의 충군정신을 칭송하고 있는 시⁵⁷⁾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석주는 전란의 와중에서 겪는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전쟁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겪는 아녀자들의 고난에 애써 관심을 표명했다. 「征婦怨」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이미 죽은 줄도 모른 채 남편을 위해 겨울옷을 다듬질하는 아낙의 비극적 정황을 그리고

56) 「高判書敬命改葬挽章」(권1:99-100).

57) 「夢得一小冊……爲作一絶」(권7:238-9).

있다면⁵⁸⁾, 다음 시는 세금에 독촉받고 있는 征婦의 이중의 고통을 읊고 있다.

十月孤村已滌場	시월 외딴 마을 이미 가을걷이 끝났으나
時危人事自栖遑	때가 위태로우니 사람일도 절로 허둥대네.
三更催稅此州吏	삼경에 세금 재촉하는 이 고을의 아전아,
萬里負戈何郡郎	만리에 창 멘 이는 어느 군의 사내인가.
戰檄交馳塵漠漠	전쟁격서 마주 달리는 티끌이 아득하고
哭聲直上天蒼蒼	곡성이 솟구치나 하늘은 푸르기만 하구나.
寡妻群盜正如此	과부와 못도적 바로 이와 같으니
悵望南雲摧肺腸	쓸쓸히 남쪽 구름 바라보매 애간장 끊어지네.

(述懷示五山三首, 권4 : 173, 제2수)

전쟁과 고을 관리들의 수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지만 하늘은 무심히 푸르기만 할 뿐 어떤 구원의 손길도 뻗치지 않는 현실 속에서, 征婦는 과부가 되고 백성들은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담한 심정으로 읊고 있다.

석주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백성들의 생활상 질곡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는 1603년 端川郡守로 떠나는 벗 이안눌에게 준 시에서 백성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벼슬아치들은 토색질에만 탐닉하여 백여 호 되던 마을이 十戶도 제대로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⁵⁹⁾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의 횡포로 말미암아 전란에 시달린 백성들이 다시 유민화·도적화하는 역사적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고 거치는 과정에서 석주는 관리들의 횡포를 목격·비판하고, 이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는 시편을 남기고 있는바, 이같은 경향은 전쟁 중에만 국한되

58) “交河霜落雁南飛 九月金城未解圍 征婦不知郎已沒 夜深猶自搗寒衣.”(征婦怨, 권7 : 227).

59) “……國家新去亂 憂虞方未畢 黎元困征賦 愁痛未忍說 官吏恤供給 割剝到膏血 向來百家村 所存無十室…….”(送李子敏安訥出守端川, 권1 : 45).

지 않았다. 석주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고통받는 백성에 대한 애정은 그의 전생애에 걸쳐 제작된 한시를 일관하는 시정신이었던 것이다. 우선 지배층에 대해 비판하는 것들을 보기로 하자.

戚里多新貴
朱門擁紫微
歌鍾事遊讌
裘馬鬪輕肥
祗可論榮辱
無勞問是非
豈知蓬屋底
寒夜泣牛衣

외척 중에 새로 귀하게 된 사람 많아
붉은 대문이 궁궐을 둘러쌌네,
노래소리·풍악소리에 놀음 잔치 일삼고
갓옷과 말은 가벼움과 살점을 다루네.
단지 영화로움과 욕됨을 따질 뿐이지
옳고 그름은 수고로이 묻지도 않네.
어찌 알리오, 쑥대 지붕 아래서
추운 밤 쇠덕석 덮고 우는 백성을.

(詠史, 권3 : 155)

이 시는 외척들의 생활 모습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비록 제목이 당대 사회의 忌諱를 피하기 위해 역사를 끌어 들이고 있으나 이 시가 광해군의 외척 유희분 일파를 풍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석주는 이 시와 같이 직접적인 풍자인 경우, 좀 더 자유로운 시상 전개를 위해 역사를 가탁하거나 우의적인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 윗시는 事理와 시비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호사한 생활과 향락에만 관심이 있는 외척들의 모습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상호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吳歛且勿叫
蜀絃且勿彈
四座各傾耳
聽我行路難
何處路最難
最難在長安
長安大道傍
甲第遙相望

오나라 노래도 부르지 말고
촉나라 악기로 타지 말고서
사방 모두 귀 기울여
나의 가는 길 어려움 들어 보게.
어디 길이 가장 어려운가?
가장 어려움은 장안에 있네.
장안 큰 길 가에는
홀륭한 집들이 즐줄이 마주 비네.

借問誰所居
許史與金張
軒車溢閭巷
絲竹鳴中堂
手握造化闕
天地隨低昂
笑或吐春華
怒或飛秋霜
一言不相入
瞬息成禍殃
嗟爾遠方士
營營欲何求
歸去復歸去
桂樹山之幽

누가 사나 물어보니
외척과 권세가들 산다고 하네,
수레들은 길거리에 넘치고
악기들은 중당에서 울리네.
손은 조화부리는 판문을 잡았나니
천지는 따라서 낮았다 높았다 하네.
웃으면 봄빛을 토하기도 하고
성내면 가을 서리를 날리네.
한 마디 말을 서로 들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재앙을 이루네.
아, 그대 먼 지방의 선비여,
골똘히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돌아가오, 돌아가
계수나무 우거진 산의 그윽함으로.

(行路難, 권1 : 39-40)

이 시 또한 權臣, 威貴들의 횡포와 부정을 중국의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漢 宣帝라는 역사적 배경을 설정하여 長安 큰 길 가 甲第들에 사는 外戚 세력(許伯·史高)과 권문 세족(金日磾·張安世)의 권력 천단과 호사한 생활 모습을 묘사하고 그들의 뜻을 거슬리면 애매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당시 외척의 횡포와 집권세력의 버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何處路最難 最難在長安”이라는 구절은 평소 석주가 가졌던 마음의 솔직한 표백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인의 삶을 살면서 宦路에 대해서는 반사적이라 할 정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관직생활, 곧 정치권의 성격을 조화와 타협의 세계라고 파악하기보다는 대립과 반목의 투쟁적 세계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長安에 벼슬 구하러 온 東魯인이 고관이 된 옛 친구를 만났으나 그 기상에 놀려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고 여관에 돌아와서 “뒷 사람에게 이르노니/이 길은 참으로 獨難하다오.”(傳語後來人 此路

誠獨難)⁶⁰⁾라고 탄식한 이 길은 곧 서울의 길ियो, 벼슬길인 것이다. 중앙 정계 진출의 터전인 서울의 벼슬길은 옛친구까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비정의 길로 석주에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석주의 눈에는 권력 장악을 위해 당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백다귀 하나를 놓고 다투는 개처럼 보였다.

誰投與狗骨	누가 개에게 백다귀를 던져 주었나.
群狗鬪方狼	못개들이 바야흐로 사납게 다툰다.
小者必死大者傷	작은 놈은 반드시 죽을 계고 큰 놈도 다치리니
有盜窺竄欲乘霧	도적이 옛보다가 그 틈을 타려하네.
主人抱膝中夜泣	주인은 무릎 안고 한밤중에 우는데
天雨墻壞百憂集	비내려 담장까지 무너졌으니 온갖 근심 모였네.

(鬪狗行, 권2 : 85)

정권 탈취를 위해 당쟁에 몰두하다 결국 외침까지 당한 조선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주는 특히 세도가의 전횡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니, 「古長安行」 「有木不知名」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전자는 「行路難」과 같이 漢代 金·張家의 전횡을 끌어와 그러한 부귀영화도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당시의 戚族들을 규계하고 있는 작품이고,⁶¹⁾ 후자는 우의적인 수법으로 당시 세도가의 전횡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有木不知名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무가 있어
三株互蟠結	세 그루가 서로 서리고 얽혔네.
地高偏受露	땅은 높아 이슬을 담뱃 받고
陰重巧遮日	그늘은 겹쳐 교묘히 해를 가렸네.
群蟻喜心空	못개미들 속이 비었음을 기뻐하고
衆鳥欣葉密	못새들은 잎이 짙어짐을 기꺼워 했으나
兼爲魍魎宅	겸하여 도깨비 집이 되었으니

60) 「古憲八首」(권1 : 37), 제2수.

61) 「古長安行」(권2 : 81).

百怪中夜發
有人不量力
持斧擬剪伐
爲近社壇下
欲進還股慄
一朝霰雪繁
天道有肅殺

豈若澗底松
千載自蕭瑟

온갖 괴이함이 한밤중에 일어났네.
어떤 사람이 힘을 헤아리지 않고
도끼를 가지고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그곳은 사직단 아래에 가까워서
나아가려 했지만 도리어 벌벌 떨었네.
하루 아침에 싸라기눈이 흠뻑 내렸으니
하늘의 이치엔 가을 기운으로 초목을 죽임이 있
도다.
어찌 시냇가 소나무의
천년동안 스스로 소슬함과 같으랴.

(有木不知名效白樂天, 권1: 64-5)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무를 찾아오는 개미와 새들은 벼슬을 찾아오는 선비들에 대응되고, 그 곳에 깃들인 도깨비는 戚臣에 대응된다. 따라서 나무는 곧 조정이 된다. 군주를 등에 업은 척신들의 세도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식물도 가을이면 잎이 지듯이 이 세도 또한 어느날 일순간에 뒤집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석주의 시적 자아는 한 그루 시냇가의 소나무인 양 가을 서리와 무관하게 우뚝 서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우의적인 작품으로 앵무새가 궁궐에 들어와 군왕의 온갖 총애를 다 받으며 살다가 어느날의 화재로 조롱 속에서 타 죽게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모두 그·처음을 부러워하지만/나는 홀로 그의 종말을 슬퍼하노라/어찌 옛산의 벗들이/소나무·계수나무 숲에서 외로이 울고 있음과 같으랴.”(人皆羨其始 我獨悲其終 豈若故山侶 孤鳴松桂叢)⁶²⁾라고 하여, 당쟁으로 인한 士禍의 비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다. 다음 시 또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宮中氣候風兼雨

궁중 기후는 바람과 비를 더했고

62) 「古意八首」(권1: 36-7), 제1수.

妾似盈盈枝上花	첩은 마치 예쁘게 핀 가지 위의 꽃과 같네.
昨日被催今被妬	어제는 재촉받더니 이제는 투기 만나니
可憐零落委泥沙	영락되어 진흙에 떨어짐이 가련하구나.

(無題, 권7 : 280)

석주는 궁녀의 입장에 서서 군왕의 총애를 바라는 자신이 비바람 앞의 꽃잎과 같은 존재임을 밝혀, 벼슬길의 부질없음과 사화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밖에 「忠州石」은 당대 사회의 허구적이고 의례적인 관습에 대한 비판이다. 세도가마다 충주의 美石을 옮겨 神道碑를 만드는데 거기에 새기는 말이 한결같이 허위와 가식에 찬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事君忠且直	임금 섬김에는 충성스럽고 강직했으며
居家孝且慈	집에서는 효성스럽고 또 자애로웠네.
門前絕賄賂	문전에는 뇌물을 사절하고
庫裏無財資	창고 속에는 재물이 없었네.
言能爲世法	말은 능히 세상의 법이 되었고
行足爲人師	행동은 족히 남들의 사표가 되었네.
平生進退間	평생의 나아가고 물러남이
無一不合宜	하나도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네.
所以垂顯刻	그래서 이렇듯 뚜렷이 세겨
永永無磷緇	영원토록 닳아지지 않기 바라네.

(忠州石效白樂天, 권2 : 103-4)

석주의 의식에 있어서는 이같은 사실이 모두 허위에 불과했다. 오히려 이 기록의 역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세도가에 대한 석주의 시각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석주는 이 시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 세도가에 대한 반감과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거의 관습적으로 칭송 일변도의 내용을 담아온 신도비 형식의 문체에 대한 불신까지를 함께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에 바탕해서 그는 이 시의 마지막을 “하늘이 무덤 물건 낼 제 입이 없어 다행이지/돌에 입이 있

게 하였다면 응당 할 말 있으렸다.”(天生頑物幸無口 使石有口應有辭)⁶³⁾라고 맺음으로써 함축적인 言外의 표현효과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석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교활한 말과 행동은 간교하기가 밤중에 울면 주인을 厄에 빠뜨린다는 올빼미보다 더 심하다는 내용을 담은 시는 곧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와 비판일 것이요,⁶⁴⁾ 길 가다가 사당에 복을 빌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것을 비판한 시는 당대 사회에 충만된 미신신봉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⁶⁵⁾ 이와 함께 다음의 시는 일반 백성들의 역량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냈다.

焚書計太拙

본서의 계획은 크게 졸렬했으나

黔首豈曾愚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어리석었으랴.

竟發驪山塚

끝내 여산의 무덤을 파헤친 것은

還非詩禮儒

도리어 詩禮 익힌 선비가 아니었다네.

(秦始皇, 권6 : 217)

허균의 豪民을 연상케 해 주는 백성에 대한 인식이다. 석주는 백성에 대한 신뢰감에 기초해서 의식의 차원에서나마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애민시의 영역에 들어갈 시편이 상당수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驅車兒」와 같은 兒時作에서부터, 남편은 부역나가 3년 동안 소식이 끊긴 가운데 젓먹이 딸이 딸렸을 뿐 아니라 늙은 시부모를 모신 처지로서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衣食을 해결하지 못하고 호느끼는 아나네의 애담은 하소연을 그린 「切切何切切」(권1 : 30)과 같은 특수한 개인의 사례를 읊은 시도 있고, 봄이 다 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한발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사회의 전체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 있다.⁶⁶⁾ 이런 작품들과 함께 또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으니 곧 소외받은 특수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白湖 林悌(1549~1587)가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노래를 지어 불렀듯, 석주는 평양 칠성문 밖 기생들의 공동묘지인 嬋娟洞을 찾아 그녀들의 애

63) 「忠州石效白樂天」(권2 : 104).

64) 「夜坐醉甚走筆成章三首」(권1 : 28-9), 제3수.

65) 「叢祠行」(권2 : 98).

66) 「春盡無雨四月初吉有作」(권3 : 116).

달픈 한을 읊고 있는 것이다.

年年春色到荒墳	해마다 봄빛은 거친 무덤에 찾아오니
花似新粧草似裙	꽃은 새 단장, 풀은 치마갈구나.
無限芳魂飛不散	무한한 꽃다운 혼들 날아 흩어지지 않고
至今爲雨更爲雲	오늘까지 비가 되고 구름이 되네.

(嬋娟洞, 권7 : 259)

古洞寥寥草自春	옛 골짜기 적막하고 풀은 절로 봄인데
客來何事暗傷神	나그네는 무슨 일로 그윽히 마음 상하나.
可憐此地埋珠翠	가련토다, 이곳에는 진주·비취 묻혔나니
盡是當時歌舞人	그들은 모두 당대의 가무인이었다네.

(嬋娟洞, 別集 권1 : 414)

앞의 시는 봄에 피어나는 무덤 가의 화초가 무덤 속 기생들의 모습을 꾸민 듯하고 한 맺힌 님은 지금껏 웅어리져 雲雨之情을 반복한다는 것이며, 뒤의 시는 이 무덤들을 보고 마음 상해 마지 않는 석주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석주의 사회시는 사회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고발 및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받는 일반 백성들의 질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물론 이같은 작품세계는 사회와 인생을 바라보는 평소의 기본시각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시각은 앞서 「答宋弘甫書」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⁶⁷⁾ 그는 이러한 관점에 서서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으며, 결국 任叔英의 策問試의 결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비판한 이른바 「宮柳」(聞任茂叔削科)詩를 지은 후, 그 화로 인해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다.

宮柳青青花亂飛	궁전 버들은 푸르르고 꽃은 어지러이 나는데
滿城冠蓋媚春暉	온성 가득한 벼슬아치 봄빛에 아양떠네.
朝家共賀昇平樂	왕실에서는 태평한 즐거움을 함께 축하했는데
誰遣危言出布衣	누가 위태로운 말을 포의에게서 나오게 하였는가.

(聞任茂叔削科, 권7 : 289)

67) 주13) 참조.

결국 석주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제반 사회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여 그 부조리를 고발·비판·풍자하는 등 다양한 시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정한 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석주시의 성과는, 임란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결부되어 나타난 민중의 궁핍화 현상 및 외척의 전횡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연결됨으로써 그가 사용한 기법상의 장치에서 뿐 아니라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살아 생동하는 문학, 역사단계와 일정한 대응관계를 맺는 문학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IV. 맺음말

석주 권필이 활동했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민족의 수난이었던 임진왜란이 있었고, 문학사적으로는 뛰어난 시인들이 속출하여 한문학에 대단한 활기를 띠었던 시기였다.

석주는 어려서부터 기질적으로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며 속박되기를 거부하는 자유인이고자 했다. 게다가 그는 당대 사회현실 및 정치현실 속의 모순을 인식하고, 또 방외인적 삶을 살아온 洪至誠·鄭碯 등의 영향을 받는 등 복합적 요인 속에서 결국 중세기적 지배질서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방외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석주는 이러한 삶의 방향 속에서 시를 통해 자아를 실현코자 했고, 따라서 시는 자아실현의 유일한 도구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시에서 수사나 기교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시의 효용성을 사회적 차원의 공간정신으로 파악하고 실제 사회시를 통해 그것을 실현코자 한 사실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 전개상 역사적 사실에 가탁하거나 우의법·몽상법 등의 수법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당시의 忌諱를 피하기 위해 또는 표현의 효과를 위해 끌어들인 의도적인 장치라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시는 자아실현의 도구라는 의미를 띠지만, 현실적 의미의 효용성은 상당히 공허하게 파악됨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그는 시 창작의 욕망을 “魔”라고까지 느끼게 되어 결국 시인일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고, 이것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다.

현실에 대한 자아의 갈등과 그것의 극복의지를 다룬 시들을 보면, 근원적인 삶의 의미 구명을 위해 세속의 변화·치우침이 없는 항상성의 의미로서의 자연을 상정하지만, 결국 자기의 뜻에 맞는 생활이라는 의미로서의 자연의 삶은 관념상의 구원이요,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를 전제하지 않은 자연이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고립무원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의 장치가 꿈(몽상)의 세계이지만, 이 꿈 속의 세계 또한 실제 현실갈등의 역설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시의식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석주시의 본질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안주처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이상을 추구하는 그 정신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의 사회시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이 시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은 그가 방외인적 삶을 살면서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시의 효용성으로 풍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바탕 위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들이다. 내용으로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상, 조정 대신의 무능성 비판 및 의병들의 애국정신 찬양 등이 중심을 이루고, 그 밖에 사회 지배층의 부정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특히 외척세력과 세도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과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담고 있는 것들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가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한 適意와 和合의 세계와는 도저히 합치되기 힘든 대립과 투쟁의 세계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석주는 현실세계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를 일삼은 듯이 느껴지지만 그의 시가 모두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 그가 의주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의 감회를 읊은 시를 보면 천리 타향에서 그리던 고향을 만나 느끼는 인간적인 뽀뽀한 정이 넘치고 있다.

京口分離後	서울에서 헤어진 뒤
書音久杳茫	소식이 오래 아득하였네.
相思今幾月	서로 그리워하기 지금 몇 달만인가.
茲會却殊方	이번 만남은 도리어 타향이로세.
雪裏生春色	눈 속에서도 봄빛이 생겨나니
天涯似故鄉	하늘 끝이건만 고향같구려.
仍懷倚門望	이에 문 기대어 기다리실 어버이 생각하니
喜極輒悲傷	기쁨이 지극하나 문득 구슬퍼지네.

(龍灣逢仲氏輶, 권3 : 136)

형을 만난 기쁨은 눈 속에서도 봄빛이 생기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하지만, 다시 고향에서 자식 기다릴 어버이 생각하니 마음이 구슬퍼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석주의 면모를 보여주는 시인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봄날 밤 처마를 울리는 가랑비 소리에 잠 못들어 하는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했고,⁶⁸⁾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내에게 활짝 핀 국화꽃을 핑계삼는 멋의 소유자이기도 했다.⁶⁹⁾

석주의 한시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가운데 일관된 방향성을 지속하면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조선중기 한시사에 있어서 한 중요한 지점을 확보했던 것이다. 그의 시는 치열한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형상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68) “春宵小雨屋簷鳴 老子平生愛此聲 擁褐挑燈因不寐 對妻連倒兩三觥。”(夜雨雜詠四首, 권7 : 245, 제1수).

69) “數日留連飲 今朝興又多 聊言也復是 奈此菊枝何。”(室人勸我止酒詩以答之, 권6 : 222).